

T V

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어두웠던 70~80년대 삶 보여줬다”

SBS TV 창사 20주년 특집극 ‘자이언트’ 7개월 여정 마무리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해피’한 것일까. 오로지 복수를 위해 전력 질주했지만 복수가 끝난 뒤에 밀려오는 허무감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며, 성공을 손에 쥐었지만 그것으로 처절했던, 애굽은 슬픔으로 잠잠했던 지난 세월을 보

만한 드라마가 나왔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시대극답지 않은 빠른 스피드로 짧은층을 유인하는 데도 성공했다. 장영철 작가는 제목에 대해 “자이언트’라는 제목을 보고 주인공이 거인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생각한 자이언트는 어두웠던 1970~1980년대를 살아온 이들이 극복하고 맞서 싸워야했던 삶, 시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떨치고 정경유착, 중앙정보부의 만행, 정치적 살인 등이 만연했던 그 시절이 바로 거대한 거인이었고, 드라마는 계단으로 바위치기일지언정 불의에 분노한 민초들의 힘이 하나둘 모여 그 거인과 싸웠던 모습을 그린 것이다.

SBS TV 창사 20주년 특집극 ‘자이언트’(극본 장영철·정경순, 연출 유인식)가 이 같은 질문을 남기며 7월 60회를 끝으로 7개월 여정을 마무리했다. 1970~1980년대 서울 강남 땅 개발기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리며 인기를 모은 ‘자이언트’는 특히 박력있고 파워풀한 스토리로 중장년 남성팬들로부터는 ‘오랜만에 볼

그는 “극중 모든 인물이 성공을 위해, 자이언트가 되기 위해 전력 질주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1970~1980년대만 가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리며 인기를 모은 ‘자이언트’는 특히 박력있고 파워풀한 스토리로 중장년 남성팬들로부터는 ‘오랜만에 볼

물론 그 가운데는 용기와 양심, 정의감으로 몽친 이상적인 인물 이강모가 있어 극적 재미를 고조시켰고, 시청자는 그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지금은 과거가 됐지만 여전히 트라우마를 주는 그 시절을 회고했다.

이강모 역시 마지막에 자신이 평생을 걸고 복수의 칼을 갈았던 조필연(정보석)에게 “내가 정말 싸웠던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같은 인간이잖아”는 시대였다”고 말하며 조필연을 넘어



선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짚는다.

이강모의 한강건선은 온갖 방해공작과 사고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이강모는 위기의 순간 지략을 발휘하고 사선에서도 편법을 쓰지 않는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장애를 하나하나 헤쳐나가며 시청자와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장영철 작가는 “어두웠고 암울했던 만큼 그 시대 사람들은 치열하고 진지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1990~2000년대가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제4회 광주바둑협회장배 빛고을의 바둑 큰잔치 유단자부 결승전 1보(1~10) board game diagram and tex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8일(음 11월 3일 壬辰)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predictions.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EBS플러스1 and EBS플러스2 program schedule table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three columns: English, Korean, and Chinese lessons.